

- 참고서보다 더 좋은 책!!
- 참고서&문제집을 한 권으로!!
- 시험에 나오는 내용&문제만 수록!!
- 나만의 1등급 전략!!



4단원
살아 숨 쉬는
국어와 매체

개정 공통 국어 고1

4-2. 한글맞춤법과 국어 생활

비상국어 비밀노트

4-2. 한글맞춤법과 국어 생활



*We can
promise you
your success*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국어를 찾는 사람들 2. 고1~3/내신.모의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3496/jk9221>

02. 한글맞춤법과 국어 생활

활동 목표

-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 울림소리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한다.(산뜻하다, 듬뿍 등)
- 'ㄴ, 모음'뒤 '열, 룰'만 '열, 룰'로 쓴다.(백분율, 실패율. 비교) 성공률, 출석률)
- 고유어가 포함되면 '사이시옷'을 붙인다.(바닷가, 시냇물. 비교) 초점, 전세방)

본문 학습

1. 나는 한글 맞춤법 탐구자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ㄱ래, '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깍두기가 맛있다. (O, X)
- 성공률이 높아졌다. (O, X)
- 공원에 가치 가자. (O, X)
- 원속으로 턱을 껐다. (O, X)

1. 다음 괄호 안의 표기 중 알맞은 것을 골라 보자.

- 선생님, 그럼 내일 (뵈요 / 뵈요).
- (백분률 / 백분율)로 계산해 주세요.
- 경민이는 머리를 (싹둑 / 싹뚝) 잘랐다.
- 일찍 일어나서 (해도지 / 해돋이)를 보았다.

내용 분석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음주의(소리) + 표의주의(의미)

해설

같은 말을 사람마다 다르게 표기하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글맞춤법을 제정한 것이다.

규정에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계층, 시대, 지역적 규정을 두고 있고,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은 표음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소리대로 적으면 어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경우처럼 어원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문 확인하기

올바른 표기 설명

- 깍두기 ➡ 깍두기: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ㄷ'이 앞말의 받침 'ㄱ'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깍두기는 [깍두기]로 발음되지만 '깍두기'로 적는다.
- 성공률: 'ㄴ'과 '모음 뒤'에 오는 '열, 룰'은 '열, 율'로 적고, 그 외는 원래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로 적어야 한다.
- 가치 ➡ 같이: 앞말의 끝소리인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화를 일으켜 [가치]로 발음되지만 '같이'로 적는다.
- 껐다: '괴다'의 어간인 '괴-'뒤에 어미 '-었-'이 어울려 '괴었-'이 되고, 줄어서 '껐-'이 됐으므로 준 대로 적는다.

02. 한글맞춤법과 국어 생활

4. 밑줄 친 부분에서 띄어 써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에 V 표시를 해 보자.

- (1) 서우만이 그 일을 일주일만에 해냈다.
- (2) 믿을 것은 실력뿐이니 계속해서 연습할뿐이다.
- (3)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말고, 너는 너대로 네가 하던대로 하면 돼.

◆ 그 밖에 띄어쓰기와 관련된 주요 한글 맞춤법 조항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예) 국장 곶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책상, 결상 등이 있다.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예) <원칙> 불이 꺼져 간다. / <허용> 불이 꺼져간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채영신 씨, 충무공 이순신 장군

5. 다음 포스터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띄어 써야 할 경우 V로, 붙여 써야 할 경우 O로 표시하여 고치고, 그렇게 고친 이유를 말해 보자.

자원 절약,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원을 절약하면 환경을 살릴수 있습니다.
한명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교실을 비울 때에는
냉방기와 난방기, 전등 끄기.
공용 물품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만큼 사용하기.

◆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그 밖의 헛갈리는 표기를 탐구해 보자.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으)거나, -(으)르걸, -(으)르게, -(으)르세, -(으)르세라,
-(으)르수록, -(으)르시, -(으)르지, -(으)르지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진대, -(으)르진저, -올시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키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바르면 O, 틀리면 X를 골라 보자.

- 이곳은 불쭉 아름답다.(O, X)
- 지쳤을지라도 더 해 보자.(O, X)
- 너 어제 발보 참 잘하더라! (O, X)
- 앞든지 서든지 편한 대로 해.(O, X)

내 용 분 석

‘-든지’와 ‘-던지’의 구분

1 ‘-더’는 회상시제 선어말 어미

- ‘더’: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말할 때 사용함.

- 예) 과식을 했던지 배가 아직도 부르네.

- ‘-든지’: 선택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때 사용함.

- 예) 먹든지 말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확대 적용

-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셋이데(○)/ 셋이데.)

- 학교에서 내일은 수업이 (없데(○)/ 없데.)

[해설]: 친구는 만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니까 ‘-더’를 붙여서 ‘-데’로 적고, 수업이 없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전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데’로 적어야 한다.

‘-할게’ & ‘-할게’ 구분

2 의문형만 ‘된소리’표기함.

‘(으)르걸’이나 ‘(으)르게’ 등은 모두 의문형이 아니면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다만, ‘-(으)르까요?’처럼 의문형은 ‘된소리’표기로 한다.

예) 전화할게(*) / 전화할게(○), 갈까?(○)
내가 먹을걸(*) / 내가 먹을걸(○)

보조 용언과 본용언의 띄어 쓰기

3 ‘본용언+본용언’은 띄어 쓴다.

-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용언은 일반적으로 ‘본용언’이 되고, 뒤에 연결되는 용언은 본용언이거나 보조 용언이 된다.

예) 가고 싶다.(본용언+ 보조 용언).

주워 먹다(본용언+본용언)

-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지만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은 반드시 띄어 쓴다.

예) 걸어 가다.(본용언+ 본용언): 반드시 띄어 씀.

잊어 버리다.(본용언+보조용언): 둘 다 가능.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도 합성동사이거나 중간에 보조사 등이 삽입되면 띄어 써야 한다.

예) 먹어도 보았다.(띄어 씀), 떠내려가 버렸다.

3. 사이시옷 표기 규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귤밭, 텃마당, 뒷일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귤병, 훗날, 뒷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예) 곳간, 셋방, 솥자, 찻간, 튀간, 횡수 [GO! 세수 차태현!]
곳간 셋방 솥자 찻간 튀간 횡수

중요!

틀리기 쉬운
사이 시옷 말

- | | | | | |
|-------|-------|-------|-------|--------------|
| • 양치물 | • 등교길 | • 선짓국 | • 머릿방 | • 훗날 |
| • 전셋집 | • 장맛비 | • 만두국 | • 아랫니 | • 후일(後日) |
| • 전세방 | • 장미빛 | • 인사말 | • 위쪽 | • 훗일(後+일) |
| • 셋집 | • 소줏집 | • 머리말 | • 윗산 | • 뒷일 |
| • 셋방 | • 소주방 | • 모깃불 | • 위채 | • 해님(합성어 아님) |

사잇소리현상

1. **합성어**가 될 때(뚫+뚫)
2. 다음 세 가지 조건일 때

① **울림+안울림=뒷소리 된소리**

예) 봄+비=[봄베], 밤+바다=[밤빠다]

② **'ㄴ, ㄹ'앞에서 'ㄴ'이 생김.**

예) 바다+물=[바단물], 이+몸=[인몸]

③ **'모음+모음'='ㄴ, ㄴ'이 생김.**

예) 나무+잎=[나문닙], 깨+잎=[깨닙]

해설

- [제30항]: 사이 시옷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합성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근'+어근' 형태가 되어야 한다. 더 쉽게 이해하면 '뚫+뚫'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사이 시옷 규정에서는 '고유어'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 한자어가 결합하더라도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단,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6개의 단어 '곳간, 셋방, 솥자, 찻간, 튀간, 횡수'만 사이 시옷을 적는다. 배우 '차태현'이 세수하러 간다 (GO! 세수 차태현)으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좀.. 억지같기는 하지만^^)
- 햇님은 잘못된 표기이다. '해'+님'이 결합했는데 '님'은 어근이 아니라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이다.

씩씩 쿡 쿡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 완성하시오.

- 사이 시옷을 적는 조건은 단어의 결합 형태가 [**합성어**]가 되어야 하고 [**고유어**]가 들어가면 사이 시옷을 표기한다.
-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에는 [**곳간, 셋방, 솥자, 찻간, 튀간, 횡수**]의 6개만 사이시옷을 적는다.

2. 제시된 단어 중 표기가 올바른 것만을 고르시오.

- | | | | | |
|-------|-------|-------|-------|-----------|
| • 양치물 | • 등교길 | • 선짓국 | • 머릿방 | • 후날 |
| • 전셋집 | • 장마비 | • 만두국 | • 아랫니 | • 훗일(後日) |
| • 전세방 | • 장미빛 | • 인사말 | • 위쪽 | • 훗일(後+일) |
| • 세집 | • 소줏집 | • 머리말 | • 윗턱 | • 뒷일 |
| • 셋방 | • 소주방 | • 모깃불 | • 윗채 | |

정답

셋방, 소줏집, 만두국, 아랫니, 뒷일

3. [보기]를 참고할 때 내용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보기]

선생님: 사잇소리 현상은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으로 보는데 선행하는 말이 받침이 없을 때,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ㅅ'을 적습니다. 이를 '사이시옷'이라 합니다. 사이 시옷을 적을 때는 고유어의 유무가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한자어와 한자어는 6개의 단어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죠. 가끔 우리는 합성어라는 조건을 잊고 사이 시옷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① 뒷일을 [된닐]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현상이 일어난 결과군.
- ② 인사말, 머리말은 사이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되는군.
- ③ 규정에 따라 만두국은 만두국이 맞는 표기겠군.
- ④ '모기+불'도 불이 고유어니까 '모깃불'로 표기해야 해.
- ⑤ '해+님'은 고유어의 결합이므로 당연히 'ㅅ'을 넣어야 해.

정답

⑤

'해님'은 어근 '해'와 접사 '님'이 결합한 형태로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기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 맞춤법 암기 자료!!



- 금새 ➡ 금세
- 몇일 ➡ 며칠
- 역활 ➡ 역할
- 단언컨데 ➡ 단언컨대
- 깨끗히 ➡ 깨끗이
- 곰곰히 ➡ 곰곰이
- 가벼히 ➡ 가볍이
- 일일히 ➡ 일일이
- 굳이 ➡ 굳이
- 일부로 ➡ 일부러
- 서슴치 ➡ 서슴지
- 요컨데 ➡ 요컨대
- 오랫동안 ➡ 오랜만에
- 어떡해 ➡ 어떡해
- 어따대고 ➡ 얻다 대고
- 건들이면 ➡ 건드리면
- 웬지 ➡ 왠지
- 웬만하면 ➡ 웬만하면
- 웬일인지 ➡ 웬일인지
- 설것이 ➡ 설거지
- 한 움큼 ➡ 한 움큼
- 바람 ➡ 바람



- 애기 ➡ 아기
- 돌맹이 ➡ 돌맹이
- 댓사 ➡ 대가
- 설레임 ➡ 설렘
- 되물림 ➡ 대물림
- 빈털털이 ➡ 빈털터리
- 구렛나루 ➡ 구레나룻
- 짜집기 ➡ 짜깁기
- 뒤치닥거리 ➡ 뒤치다꺼리
- 야단법석 ➡ 야단법석
- 땡기다 ➡ 당기다
- 날름 ➡ 날름
- 들렀다 ➡ 들렀다
- 폭팔 ➡ 폭발
- 담궜다 ➡ 담갔다
- 통채로 ➡ 통째로
- 내 거 ➡ 내 거
- 사궜다 ➡ 사귀었다.
- 눈쌀 ➡ 눈살
- 애띠다 ➡ 앳되다
- 바궜어 ➡ 바뀌었어
- 낭떨어지 ➡ 낭떠러지
- 찌뿌리다 ➡ 찌푸리다
- 움크리다 ➡ 웅크리다
- 욱신거리다 ➡ 욱신거리다
- 하던 말던 ➡ 하든 말든
- 더 낫다 ➡ 더 낫다
- 들어나다 ➡ 드러나다
- 뵈요 ➡ 뵈요



- 돼다 ➡ 되다
- 희안하다 ➡ 희한하다
- 헬썩하다 ➡ 헬썩하다
- 움추리다 ➡ 움츠리다
- 닥달하다 ➡ 닥달하다
- 잠궜다 ➡ 잠갔다
- 할께요 ➡ 할게요
- 어의없다 ➡ 어이없다
- 납작ㅎ다 ➡ 납작하다
- 안되 ➡ 안돼
- 삼가하다 ➡ 삼가다
- 난장이 ➡ 난쟁이
- 좇어 ➡ 주워
- 개구장이 ➡ 개구쟁이
- 귀뜸 ➡ 귀땀
- 실증 ➡ 실증
- 화병 ➡ 화병
- 넓직한 ➡ 널찍한
- 내노라하는 ➡ 내로라하는
- 면이 불다 ➡ 면이 불다
- 뇌졸중 ➡ 뇌졸중
- 찜찜하다 ➡ 찜찜하다
- 우겨넣다 ➡ 욱여넣다
- 꺼림직하다 ➡ 꺼림칙하다
- 검정생 ➡ 검은색
- 어짜피 ➡ 어차피
- 애개 ➡ 애개
- 값을 치루다 ➡ 값을 치르다
- 여지껏 ➡ 여태껏
- 유도심문 ➡ 유도신문



- 되려 ➡ 되레
- 흐리멍텅 ➡ 흐리멍덩
- 뒷태 ➡ 뒤통
- 뒷풀이 ➡ 뒤통이
- 임마 ➡ 인마
- 요세 ➡ 요새
- 느즈막하다 ➡ 느지막하다
- 제작년 ➡ 재작년



국어를 찾는 사람들 2. 고1~3/내신.모의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3496/jk9221>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